

최악 시에 해맞이·해님이 행사 잇따라 취소

영암·고흥 개최 않기로...해남·나주도 고심 방역대책 고심 속 나주·진도서 또 의심신고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에 전남 각 시·군이 해맞이·해님이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영암과 고흥이 가장 먼저 취소를 결정했고, 해남, 나주 등 이미 AI가 발생한 시·군에서도 개최 여부를 고심 중이다.

행사를 취소한다 해도 해맞이객의 방문까지 통제할 수는 없어 방역대책 마련에도 골몰하고 있다.

전남도는 22일 “21일 22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오는 31일부터 새해 첫날까지 이어지는 해맞이·해님이 행사가 있어서 AI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취소 여부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나주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오리 사육자인 영암은 철새도래지인 영암호가 있어 자체 검토 끝에 취소를 결정했다. 고흥 역시 남열해수욕장에서 개최하기로 한 해맞이·해님을 올해 치르지 않기로 했다.

나주시도 금호동 정수루 일원에서 열기로 한 ‘복 두드림 제야 행사’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나주에서는 전남 가금류 농장에서 발생한 AI 9건 가운데 5건이 몰렸다. 전국 농장 가운데 AI가 가장 먼저 발생한 해남군은 전남도 및 다른 자치단체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해맞이 행사는 ‘대한민국 땅끝’이라는 상징성을 등에 업고 전국 대표 새해 축제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전남에서는 순천만 화포마을, 여수 향일암, 나주 정수루, 진도 세방낙조, 완도타워, 영암호, 장흥 정남진 전망대, 영광 불갑산, 해남 땅끝, 고흥 남열해수욕장, 화순 만연산 큰재, 강진 주작산, 해남 울돌목 등지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전남도는 자치단체별로 검토가 진행되면서 취소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자치단체들은 공식행사가 없더라도 일

출·입물 명소에 관광객이 몰려들 것에 대비해 주요 도로에 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등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22일 나주와 진도에서는 AI의 의심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다. 올해 들어 하루에 2건의 의심사례가 신고된 것은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모두 씨오리 농장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나주시 반남면 한 씨오리 농장에서 산란을 검사와 폐사 신고가 접수됐다. 평소 3600개 알을 낳던 오리들이 이날은 860개까지만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동물위생시험소 실험실 검사

에서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이 농장에서 키우는 오리 5000 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이다. 반경 500m, 3km 안 농가 현황도 파악해 살처분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진도 의심된 씨오리 농장에서도 오리 10마리가 폐사하고 산란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하루 알 생산량이 1만3000개였으나 이날은 7500개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는 H5형 바이러스 검출 여부에 따라 오리 1만 5000 마리 살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두 곳 모두 AI가 확진되면 나주에서만 6 번째, 진도에서는 올해 첫 사례가 된다.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나주 5건, 해남·무안·장성·구례 1건씩 모두 9건의 확진 판정이 나왔다. 주변 농가를 포함해 34 농가 62만6000 마리가 살처분됐다.

특히 확진 9건 가운데 5건, 의심 2건 등

모두 7건이 씨오리 농장에 집중돼 ‘오리 씨가 마르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

양계장 종사자 등 건강상담 광주근로자건강센터 26일부터

광주근로자건강센터는 양계장 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작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건강상담 지원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강상담 지원 내용은 개인정보구 작성법, 조류인플루엔자로부터 안전한 작업 방법, 심리교육, 이상 징후자 정진과 상담 등이다. 문의 1599-6497. /김현명기자 young@



야생동물 먹이주기

광주 북구와 자연보호국협회의, 야생생물보호협회는 22일 삼각산 일대에서 겨울철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를 열었다. 북구청 환경과 직원들과 회원들이 먹이를 찾지 못한 야생동물들을 위해 배추와 고구마 등을 뿌려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에 빠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병원 과실을 인정했다.

또 “수술과 마취 전 보호자 동의를 받았지만 마취제 투약 이전에 호흡근관 및 쇼크 발생 등의 합병증이나 후유증을 구체적이고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투약 전 동의서 기재만으로는 의료진이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활력징후에 대한 감시 없이 다른 종류의 진정·마취 약물을 짧은 간격으로 여러 차례 투약·검사하고, 투약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예방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로 환자가 의식 불명 등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 불합격 속출 기능시험 합격률 90%→10%로 ‘뚝’

22일부터 운전면허시험 제도가 이전보다 대폭 강화, 시행되면서 예상대로 불합격자가 속출했다.

나주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직각주차(T자주차)와 경사로 등 부활한 기능시험 코스에서 불합격자가 쏟아지면서 기능시험 합격률은 기존 90%에서 10%대로 떨어졌다. 다만, 제도 강화 이전에 응시자들이 몰려들었던 탓에 시험장은 다소 한산한 분위기다.

시험장측에 따르면 이날 응시자는 학과시험(필기) 100명, 장내기능시험 94명, 도로주행 27명이며 합격률은 각각 85%, 10%, 60%로 파악됐다. 제도 강화 이전 평균 합격률이 학과시험 86%, 기능시험 90%, 도로주행 64%였던 것을 고려하면 기능시험 합격률이 무려 80%포인트가량 떨어진 것이라 고 시험장 측은 밝혔다. 응시자들은 과거 기능시험에서 대표적인 난코스인 좁았던 직각주차와 경사로(정지 후 출발)에서 감점 받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시험장 측의 설명이다.

시험 난이도가 높아지기 전날인 지난 21일 전남운전면허시험장에는 학과와 기능 시험 응시자가 각각 646명, 153명이 몰릴 정도로 붐볐던 것과 대

조적으로 이날은 총 응시자가 200명을 겨우 넘는 등 한산했다.

경찰은 지난 2011년 6월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불면허’로 불릴 만큼 면허 취득이 쉬워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시험 제도를 강화했다. 학과시험 문제는행 문항 수는 기존 730개에서 1000개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40문제가 출제된다. 장내기능 평가항목은 장치 조작, 차로 준수 등 2개 항목에서 직각주차, 경사로, 좌우회전, 신호 교차로, 가속코스 등이 추가돼 7개로 늘었다. 전체 주행거리도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어났다.

도로주행시험의 평가항목은 차량 성능 향상으로 불필요해진 항목을 삭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지정속도 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해 기존 87개에서 57개로 정비됐다.

방향지시등(깜박이) 점수를 3점에서 7점으로 높이는 등 배점기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실격기준도 강화됐다.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교육 시간은 학과는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고 장내 기능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었다. 도로주행은 기존과 동일한 6시간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외할머니·어머니 폭행 20대 징역 3년 선고

흔쾌하던 외할머니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이를 말리는 어머니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특수폭행·손폭행·폭행·예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5)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9월29일 밤 10시께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70대의 외할머니 A씨와 다투던 중 A씨를 넘어뜨려 수회 폭행하고 술이 든 맥주캔으로 머리를 한 차례 때리는 등 4주간의 치료

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는 어머니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신씨는 또 같은 달 3일 밤 11시50분께 술에 취해 귀가,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나무라던 A씨에게 맥주캔을 던져 A씨의 뒷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욕설을 하며 이웃에게 무단 침입하는가 하면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하고, 교회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공구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카셰어링으로 차 빌린 무면허 고교생 교통사고 내고 “허적”

○...광주의 한 고교생이 스마트폰 앱만으로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를 악용해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면서 경찰에 달미.

○...22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A(17)군은 지난 15일 오후 7시13분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카셰어링으로 빌린 K5를 몰다가 마주 오던 K7 차량과 부딪혔는데,

그 충격으로 K7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주차돼 있던 아우디, 벤츠 승용차 2대가 연쇄적으로 충격을 줬다는 것.

○...A군은 이날 어머니 명의로 빌린 차에 친구 3명을 태우고 왔다가 뜻하지 않게 ‘대형사고’가 터지자 그대로 달아났는데, 경찰에서 A군은 “그 아파트에 고급 외제차가 많다가에 구경했는데 내가 외제차랑 사고를 일으켜 1500만원을 물어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한숨만 푹푹. /김형호기자 khh@

충분한 설명없이 마취약물 반복 투약 사망

“종합병원, 유족에 1억원 배상하라” 판결

진정·마취 약물인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충분한 설명없이 반복적으로 투약해 환자를 의식불명에 빠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한 종합병원에 1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조정웅)는 의료과실로 사망한 A씨의 유족 4명이 광주의 한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74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1월 두통 증상으로 이 병원을 방문해 지주막하출혈·중대뇌동맥류 파열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의식수준이 나쁜 상태인 것 외에 특이소견이 없어 일주일 뒤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하려했으나 안정되지 않아 수면마취제인 미다졸람 2회, 프로포폴 1회를 24분만에 반복 투약했다. 이후 후 호흡저하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심장정지가 발생해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했다.

그러나 A씨는 계속해서 의식 불명과 사지 마비 증상을 보였고 저산소성 뇌손상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다음해 2월 퇴원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해 10월 숨졌다.

유족은 “환자 상태와 용법·용량에 주의해 약물을 투약하지 않았다. 합병증이나 후유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병원 과실로 A씨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활력징후에 대한 감시 없이 다른 종류의 진정·마취 약물을 짧은 간격으로 여러 차례 투약·검사하고, 투약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예방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로 환자가 의식 불명 등

미수금 회수대행 - 못받은 돈 -

- ▶채권 추심(회수) 전문
 - 민사 채권 : 판결문, 공증 외
 - 상사 채권 : 물품/공사/용역/매매대금, 장비대여 대금, 상가보증금 외
- ▶채무자(개인·법인) 재산 및 신용조사 (부동산, 차량, 증권, 거래은행, 신용상태 등)
- ▶연락두절 채무자 및 실거주지 파악
- ▶차용증, 각서, 은행입금내역, 계약서, 거래장부 등 모든 채권에 대한 명쾌한 상담 가능!

채권 추심 경력 20년 노하우

새한신용정보(주) (금감위 허가업체)

010-8607-1122 (전남대 법대졸업)

(062) 513-4307

정직·성실, 최선을 다해 회수해 드립니다

혈당조질

혈당이 왜 안떨어질까요?

코디셀스골드 대한민국특허 제0522532호

코디셀스골드는 세포에서 인체 에너지(기력)를 10배높인다는 뜻으로 포도당 연소를 통해 발생하며 혈관 속의 넘치는 포도당을 60초 개의 세포 속으로 이동시켜 에너지를 만들면서 당뇨인의 지친 세포에 활력을 주고 자연스럽게 정상 혈당으로 되는 것입니다.

NAVER 백세생활건강 검색

※이번 신제품을 구매하신 모든분께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상백미(홍나무뿌리 결집)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 자료 무료우송※

010-3598-7080

메디컬센터 | 분양 및 임대

순창터미널 맞은편

1층: 약국, 제과점, 편의점 기타
2층: 내과, 검진센터
3층: 안과, 피부·비뇨기과
4층: 치과, 이비인후과
5층: 정형외과, 한방의학과
6층: 물리치료실

대지면적 : 1,057㎡ 지상6층, 주차장 27대

1층: 101호 129.5㎡(구 39평), 102호 137.6㎡(구 41평), 103호 83.4㎡(구 25평), 104호 129.5㎡(구 39평)
2층: 201호 240㎡(구 72평), 202호 240㎡(구 72평)
3층 ~ 6층: 2층과 동일

주소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13-5번지

(주)우원 (주)태우종합건설
(063) 653-7806

분양문의
010-4922-3317